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2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3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월 15일(금) 기도 담당 : 한도성 장로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1장 다 같 이
 기 도 송삼범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3:1~12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나 여호와가 보고, 듣고, 알았다』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3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12일(화)	출 1:1~22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2월 13일(수)	출 2:11~25	나그네 세월 속에 익어가는 하나님의 때
2월 14일(목)	출 3:1~12	나 여호와가 보고, 듣고, 알았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2월 14일(목)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목상하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께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13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예배와 섬김, 봉사, 선교, 교육 등에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새성전 입당을 통하여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회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육부 겨울 행사와 해외 두나미스 터키 팀의 사역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핵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통치의 지혜를 주시고,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다시 일어나 도약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들을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